조계종 파송 장점 살리는 '중도의 묘' 필요

[기획]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④ 20년 화두 타종단 진출, 해법될까?

십수년 이어온 문호개방 요청
금강대 후보생 선발자격 신청
시민단체 범불교적 참여 성명

조계종 단일파송 장점 상당해
범불교 참여 이끌고 위상 높일
종단적 협력체제 필요한 시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포교 현장에서는 조계종 단일파송에 대한 긍정 여론도 높다. 사진은 2018년 6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군승 설법대회 모습.

2013년 1월 16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당시 교구장 자광 스님 명의로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바로 '타 종단의 군승 파송에 대하여 종단 지침과 방침을 따르며 교구에서 별도 입장을 가질 사안이 아니다' 는 것이었다. 당시 신년기자회견에서 잠시 언급이 된 것 만으로도 별도의 입장문을 낼 정도로 조계종 외 다른 종단의 군종장교 파송 문제는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미달사태 해결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4월 15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한불교삼보회, 우리는선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신대승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등이 함께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직업군인인 군종장교가 출가수행자 계율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며 군승 신분규정 등 근본적인 개선책과 함께 "금강대(천태종)와 위덕대(진각종)가 사관후보생 양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개신교계의 '군선교협의회' 와 같은 협의체 구성으로 범불교적 참여를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교시민단체들의 성명은 그동안 단일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임과 동시에 범종단적인 군종장교 파송을 구성하여 군포교를 활성화 하자는 오래된 요청이기도 하다.

군승 파송 대한 요구 이어져

조계종 외 다른 종단들은 군종장교 선발에 대한 문호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천태종은 2013년 8월 20일 종립대인 금강대 졸업자를 군법사로 파송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고 선발대상학교로 지정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존 파송주체인 조계종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4년 11월 19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를 열고 파송 요청을 부결했다.

당시 천태종은 조계종이 국방부 파송 인원 충족을 못시키는 점을 사유 중 하나로 들었지만, 이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파송 요구인원을 %%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도 나왔다. 당시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종장교 선발요건을 조계종단으로만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2001년 조계종 승려로서 임관하여 혼인 후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전역 처분 당한 진정인에 의한 것으로 조계종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고, 국방부가 조계종 단일파송 입장을 다시 밝히며 일단락 됐다.

정체성 정립 · 일사분란 장점 지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조계종 외 종단에도 파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청에도 군포교 현장에서는 조계종 단일파송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하다.

비구승인 한 군승법사는 "조계종 종단 정체성이 강화되며 군승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체성 시비가 사라져 위상이 올라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 다른 종단에서 파송시 단일화된 전력에 손상이 갈 것"이고 말했다.

4기로 임관, 군종감을 지낸 예비역법사단장 원명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은 "교단이 난립한 개신교 파송 방식의 단점도 많다"며 "군은 일사분란한 체제 하에 효과를 발휘하기에 여러 종단 난립보다 조계종 단일 파송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종단 종립대에도 사관후보생 선발 기회를 제공, 이를 동국대나 조계종 군종교구서 교육하여 단일 파송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엄격한 선발을 통과한 여러 종립대 학생들에 대해 조계종 군승으로 승적 부여 방법도 모색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1기 불교군종장교인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는 "첫 파송 당시 5명 중 故이지행 법사는 태고종 승적에도 조계종 승적을 다시 줘 파송했다. 그만큼 군포교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다"며 "군승 파송은 무엇보다 근본 목적이 포교다.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이끄는 장자종단으로서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민추본, 불교통일아카데미

8월 20~21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민추본은 8월 20~21일 양일간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총 4강에 걸쳐 '공존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아카데미' 를 연다.

8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1강의 주제는 '대 혼돈의 세계와 남북관계' 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강의한다. 오후 3시 30분에 진행하는 2강에는 '평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서울과 함께 하는 미래' 를 주제로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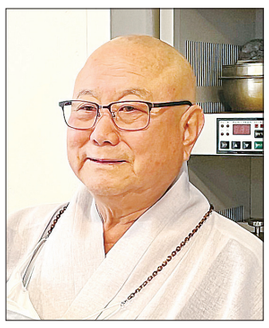
3강은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외교정책과 평화의 과제' 라는 주제로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우리가 아는 북한,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 을 주제로 미주 언론인 로창현 뉴스로 대표가 4강을 진행한다.

신청은 8월 16일까지. 홈페이지(www.unikorea.or.kr) 참조. 02)720-0531

임은호 기자

평불협, '통일보살' 30년 발자취 한 권에

기록물 '평불협 30년사' 발간
960쪽 분량에…성과물 담겨
"남북교류 새로운 장 열리길"



불교계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통일불교협회(이사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보는 '평불협 30년사' 를 발간했다.

평불협 이사장 법타 스님은 7월 4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30년을 맞아 남북불교교류의 물코를 트며 '통일보살' 의 길을 걸어온 지난 세월을 회고하고 그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담은 기록물 '평불협 30년사' 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평불협 30년사' 는 △제1장 평불협 소개 △제2장 평불협 연보 △제3장 평불협 활동과 성과 △제4장 평불협 자료실 △제5장 북한불교의 현황과 조선불교도연맹 등 5장으로 구성됐으며 총 960쪽 분량이다.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유적복원 등 평불협 활동과 성과, 사진으로 보는 평불협 30년, 북한 불교의 현황과 조선불교도연맹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겼다.

법타 스님은 "남북 불교 교류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자주적인 역량과 향후 역할을 제고하자고 한다"면서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데 출간의 목적과 의미를 뒀다"고 '평불협 30년사'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1992년 2월 12일 공식 출범한 평불협은 불교계 최초의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출범 당시 비제도권에서는 유일한 통일운동 단체로 꼽혔다. 법타 스님의 주도로 지난 30년간 대북지원과 북한 내 문화유적지 복원, 인권회복, 학술문화, 포교 교육 등 남북교류 분야에서 역할을 해왔다.

법타 스님은 통일운동을 하던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옥고를 치른 바 있다. 그럼에도 '밥이 통일이다' '밥이 평화다' 를 구호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진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7년 황해남도 봉산군에 '금강국수 공장' 을 세우고 매달 인천항을 통해 60톤의 밀가루를 보냈고 하루 7700명분의 국수를 생산, 무상으로 제공한 일은 잘 알려진 일이다.2003~2006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와 공동으로 59개 북한 사찰 단청 불사를 진행, 단청면적 12만 3715m² 에 필요한 안료 4만 7269kg을 지원했다. 또 북쪽 스님들에게 홍가사 200바탕과 장삼 옷감을 후원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신고된 평불협의 대북지원금액은 50여억 원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타 스님은 몇 해 전부터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면서 평불협의 활동도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법타 스님은 "평불협은 출범 이래 30년 동안 온갖 희비곡절 속에서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 에 기여하고자 진력해왔지만 현 상황은 마치 '잃어버린 30년' 처럼 허망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면서 " '통일보살' 의 길은 그야말로 인욕으로 점철된 형자(荊刺)의 길이었고, 그렇기에 더더욱 평불협의 지나온 발자취를 남기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코로나19 소강에 불교NGO 자비행 박차

더프라미스, 난민 지원 캠페인
공생회, 캄보디아 등에 물탱크
홈커밍데이 개최한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로부터 장난감과 미술도구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받은 우크라이나 아이들.

코로나19 팬데믹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 있는 불교 국제구호단체도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며 자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나섰던 더프라미스는 독일과 폴란드 TPU(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단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인 드네프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에 나섰다. 식량 및 비상약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를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 장난감과 미술도구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성우)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류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 시설 및 식수시설 건립 등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라오스 싸이타니구 켕카이 마을에 1동 3칸 규모의 유치원을 건립했고 현재 캄보디아 20번째 교육 시설인 뽀몬뜨라이 법성초등학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생명의 정수 물탱크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캄보디아 학교 내 정수필터를 갖춘 생명의 정수 물탱크 2기를 건립 중이며, 연내에 5기 추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탱크가 건립되면 공공장소에서 보다 쉽게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6월 3~5일 3일간 캄보디아 아동센터에서 졸업생과 원생이 함께하는 '제1회 로터스 홈커밍 데이-반갑다 친구야' 를 진행했다. 이번 홈커밍 데이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봉 남북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식' 행



모시는 말씀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문수사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진신사리탑에는 스리랑카 종정스님으로부터 기증받은 불사리를 모시게 됩니다.
특히 금번 문수사에 모시는 불사리탑은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탑의 기단 및 탑신부는 북한 묘향산 보현사 8각 13층 형태를,
탑의 상륜부는 남한 불국사 석가탑의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에 제방의 원로대덕 스님과 내외귀빈 그리고 불자 여러분을 모시고,
원만회향을 기념하려 합니다.
제막식과 더불어 〈신도회장 이 · 취임식〉도 봉행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2566(2022)년 7월 좋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주지 지원 외 사부대중 일동 합장

● 일시 : 2022년 7월 16일 (토) 오전 10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 051·624·3754 팩스 : 051·623·9253